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 한 우* · 채 수 흥**

I. 서론: 베트남 체제 변화의 명암

사회주의 베트남은 시장경제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이제 멈추면 넘어지는 외발 자전거처럼 자본주의적 하부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 정부가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정책) 이전에 사회주의화를 시도하면서 상실했던 통치력을 자본주의화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Fforde and Vylder 1996: 258; 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1998: 189-190). 자본주의화를 통해 부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정부가 오히려 인민의 지지를 받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역사학자 콜코(Kolko 1997)처럼 베트남의 독립과 사회주의적 이상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대외종속성, 불균등,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베트남 정치와 경제의 최근 현황을 소개하면서 베트남의 정치경제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asia@sogang.ac.kr.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chae4811@snu.ac.kr

적 상황을 보는 위와 같이 상반된 두 시선을 성찰해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노정하고 있는 명암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베트남은 “혁명적인 열정”으로 사회주의화를 위해 시도했던 ‘강성개혁’이 경제적 비효율성과 인민의 저항으로 실패하면서 (Beresford 1988; Vo Nhan Tri 1988), 이를 극복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응우옌반린(Nguyen Van Linh)의 영도 하에 1986년말 ‘도이머이’를 선언하고, 1987년 토지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2000년 사영화와 주식시장의 형성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한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 아세안과 2007년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여러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정부개발원조(ODA), 해외 동포(Viet Kieu)와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토대로 세계 시장경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기를 통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사하고 있듯이 도시화, 산업화, 소비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빈곤층을 감소시키고 중산층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시간의 증가, 실질임금의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11년 유럽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미국, 중국, 유럽의 정책 변동에 따라 요동치는 등 베트남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1986년말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결여와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이후 부분적 정치개혁을 수행해 왔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1당 지배를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개선하여 정치적

제적 영역에서 변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베트남 정치경제는 정치적 영역에서 표방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경제적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본주의화 사이에서 갖가지 모순을 겪으며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2016년경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장단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난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방향과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14기 국회와 신국가지도부 구성의 특성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 국내외 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사회경제와 대외관계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2016년 베트남 정치경제 개관

베트남은 2016년에 공산당대회, 국회의원 선거 및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이라는 굵직굵직한 일을 치렀다. 베트남공산당은 당원 450만 명을 대표한 1,510명 대표의 참석하에 2016년 1월 20-28일간 제 12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개최하였다.¹⁾ 이 당대회는 ‘도이머이’ 정책 30년과 지난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 발전전략을 논의하였고, 향후 5년간 공산당 및 국가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을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쓰엉떤상(Truong Tan Sang) 국가주석과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총비서는 개막연설에서 이 당대회가 “단결, 민주, 기강, 도이머이”의 대회라고 강조하였다(DCSVN 2016: 5-6, 10, 53). 당대회에서 응우옌푸쑹은 연로함

1) 2015년 기준 베트남의 전체 인구 9,170만 명 대비 공산당원 448만 명의 비율은 4.9%다.

에도 불구하고 논란 속에서 총비서로 연임되었다. 당대회 이후 5월 22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14기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회는 7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쩌다이꾸앙(Tran Dai Quang) 국가주석, 응우옌티킴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주석(국회의장),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수상 등 향후 5년간 국정을 담당할 주요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새로운 국가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경제적으로, 베트남은 2008년 세계적 경제 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 왔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12년에 5%로 최저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15년에 6.7%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 6.2%로 약간 하락하였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1년 18.6%로부터 2015년 0.6%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에 4.7%로 약간 상승하였다.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5년에 비해 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LG를 필두로 한 한국 기업의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2016년 수출은 1,76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6% 증가하여 약 27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Ha Phuong 2016).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래 실현되고 있으나, 수출의 주도권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있기에 베트남 국내 기업의 수출에 대한 기여는 한정적이다. 이상의 경제 성장 추세로 보면, 베트남 경제는 침체기를 거의 벗어난 듯하나, 아직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Ⅲ. 정치 현황과 전망

1. 제12차 공산당대회 결정의 주요 내용

제12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 내용 중 국가 발전 노선 및 체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자. 먼저, 공산당은 베트남의 현 사회발전단계를 여전히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상정하고, 이 시기 동안의 과제는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한다. 이번 제12차 당대회에서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베트남이 당면한 네 가지 위기를 언급하고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위기는,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위기, 평화적 [체제] 전복의 위기, 당 간부와 당원들의 사상·정치·도덕·생활에서의 침체로 인한 자기 [체제] 전환 및 자기 전화(轉化)(tu dien bien, tu dien hoa)의 위기, 관료주의·부패·낭비의 폐해 등이다(DCSVN 2016: 19).

공산당은 경제적 뒤처짐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돌파’로서, 발전모형의 지속적 쇄신과 경제구조조정, 공업화·현대화의 강력한 추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DCSVN 2016: 22, 77). 당은 경제구조조정으로서 공공투자의 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악성 부채 문제 해결과 공공 부채의 안정 담보, 기업집단 및 ‘총공사’(중소형 기업집단)를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농산물 가치 증대 및 신농촌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DCSVN 2016: 23, 88-89). 당은 1996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정한 공업화 목표, 즉 2020년까지 현대적 공업국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20년간 실천해왔고 이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분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당대회 정치보고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국제경제 편입도 글로벌 시장의 원칙과 기준에 적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20년까지 현대적 시장경제와 국제적 통합의 보편적 기준에 따른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DCSVN 2016: 98, 104).

공산당은 정치부문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휘하여 인민

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형식들을 체계화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DCSVN 2016: 166, 169). 정치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체제 쇄신의 임무는 공산당에 의해 영도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DCSVN 2016: 175). 이러한 정치부문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논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공산당이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화의 수준을 좀 더 높이도록 도모할 것임을 나타내준다.

대외관계에서 베트남은 독립, 자주, 평화, 협력, 발전을 기본노선으로 하여, 대외관계를 다양화·다변화하고, 국제사회에 주동적(主動的)이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한다고 제시하였다(DCSVN 2016: 153-154). 이 대외관계의 기본노선은 제11차 당대회에서의 기본노선을 답습한 것인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평화적 군사 개입의 기반이 된다고 해석된다.

이번 제12차 당대회에서 국가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단결, 민주, 기강, 도이머이”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제11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 책임, 단결, 통일”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DCSVN 2011: 11; DCSVN 2016: 10). 특히, 기강을 강조한 것은 근래 베트남 내 정치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당대회 시까지 최고 지도부 내, 특히 총비서 응우옌푸쑹과 국가주석 쑤엥떤상을 한편으로 하고 수상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을 한편으로 하여 이들 간에 권력 갈등이 있었고, 공산당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당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공산당 내 “자기 [체제] 전환과 전화”의 위기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었다(DCSVN 2016: 19).

2. 신 지도부 구성

1)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국

제12차 공산당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위원을 200명 선임하였는데, 이 가운데 180명은 표결권을 가진 정위원이고, 20명은 표결권을 갖지 않는 후보위원이다. 제11기 당중앙위 위원은 정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이었는데, 제12기에서 그 수를 이렇게 조정하였다. 이번 회기에 당중앙위 위원 교체 비율이 높아, 정위원 중 신임 위원 비율은 전 회기 51.4%로부터 54.4%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 출신 위원 중 신임 위원 비율이 86.8%로 전 회기 75.7%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 출신 위원수가 전 회기 74명에서 본 회기 68명으로 6명이나 감소하였다. 정위원 180명의 부문별 분포를 전 회기와 비교해 보면, 정위원이 5명 증가하였는데, 공산당 전임자가 5명 증가하여, 증가분을 모두 당 전임자들로 채운 셈이 되었다. 신임 위원 중 지방 출신 위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당 전임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지방으로부터 인재를 발탁하여 성과에 따라 당 전임자로 선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중앙에서 여타 부문, 즉 국회, 사회단체, 학계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군부는 2명이 증가한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국가주석이 공안부문으로부터 배출되었기에 공안부문이 당중앙위에서 과다 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안부문 출신은 전 회기 6명, 본 회기 5명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번 당중앙위 위원 구성의 변화는 기존의 권력 관계를 타파하고 당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즉, 전 회기 5년 동안 지방에서의 권력 축적을 타파하고, 당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까지 잘 파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산당은 정치국 위원 19명을 선출하여 제12기 정치국을 새로 구

성하였다. 제11기 정치국 위원 16명 중 9명이 사임하였고, 제12기 정치국 위원 19명 중 12명이 새로 선임되어, 새로 선임된 비율이 2/3 정도로 예전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제10기 정치국 위원 15명 중 제 11기 당대회에서 사임한 인원은 6명으로 절반 이하였다(이한우 2011). 공산당과 국가 최고위 지도자 4명의 출신지역은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하노이, 쩌다이꾸앙 국가주석이 닌빈(Ninh Binh), 응우옌 티킴응언 국회주석이 벤째(Ben Tre), 응우옌쑤언푹 수상이 꾸앙남(Quang Nam)으로, 북부 2명, 남부 2명의 균형을 맞춘 셈이 되었다. 이를 북·중·남부로 구분하면, 북부 2명, 중부 1명, 남부 1명이 된다.²⁾ 그러나, 정치국 위원 19명 전원의 출신지역을 보면, 북부 출신 위원이 14명인 데 반하여 남부 출신 위원은 5명으로 정치국 내 북부의 우위가 현저히 나타났다. 정치국 내 출신지역별 비율은 통일 직후부터 1986년까지 북부의 우위를 나타냈다가, 1991-2000년간 남북 균형을 보였고, 2011년 제11차 당대회부터 다시 북부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남부 출신 위원 대비 북부 출신 위원의 비율은 제11기에 거의 두 배였다가 이번 제12기에 거의 세 배로 되었다. 공산당 내 북부 우위 현상은 통일 직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하다. 1991년경 전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3%였는데, 그 비율은 북부에서 9% 남부에서 1%였다(Hiebert 1993: 193). 2011년에는 전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4%였고, 그 비율은 북부에서 5.6% 남부에서 2.3%였다(Thayer 2011).

공산당은 제12기 총비서로 응우옌푸쑹을 연임시켰다. 당대회 직전 언론들은 응우옌푸쑹 총비서와 응우옌뎐중 수상이 차기 총비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응우옌뎐중의 선출을 점치

2) 제11기 최고위 지도자들의 출신지역은,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하노이, 쩌엥뎐상 국가 주석이 롱안(Long An), 응우옌뎐중 수상이 까마우(Ca Mau), 응우옌신흥 국회주석이 응에안(Nghe An)으로, 북부 2명, 남부 2명이었다.

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당대회는 연로한 응우옌푸쑹을 특별 대우하여 당중앙위 위원으로 선출하고 이어 정치국 위원, 총비서로 선출하였다. 이 과정은 친중파와 친미파의 대결에서 친중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하나, 비교적 보수적인 응우옌푸쑹의 총비서 선임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다(김문성 2016).

2) 제14기 국회 선거와 국가지도부

베트남은 2016년 5월 22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500명 중 498명을 선출하였으며, 선거 이후 자격 미달 인사들을 제외하고 494명으로 제14기 국회를 구성하였다.³⁾

베트남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첫 국회 회의에서 구성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이례적으로 2016년 1월 공산당대회에서 차기 국가지도자들을 내정한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4월초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그 이유로 기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직무에 불충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언론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 시 새로운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문제를 협의하게 하려는 의사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016년 4월 행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이후 7월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쳤다.⁴⁾ 행정부를 구성하는 수상 및 장관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이번 제14기에 총 27명 중 북부 출신이 20명, 남부 출신이 7명이다. 이는 지난 제13기 북부 출신 21명, 남부 출신 6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에서

3) 국회의원이 의원정수보다 적게 선출된 것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의원정수보다 적은 선거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선거 이후에도 무자격자로 판명된 당선자들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다.

4) 2016년 4월과 7월 행정부 구성상 차이는 단지 농업·농촌발전부장관 1명이 교체된 것이었다.

북부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경제 현황과 전망

1. 순항하는 베트남 경제와 가속화하는 세계시장경제로의 통합

베트남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스위스연방은행(UBS)이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 있는 투자국”, “향후 5년 내에 5대 신흥 물류시장으로 성장”, “인도네시아와 함께 미국상공회의소가 뽑은 가장 매력적인 아세안 투자국”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Country Insight Report 2015: 3-17; 김문성·김윤구 2016) 등의 화려한 수사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칭송에 걸맞게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에 8-9%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5-7%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성장에 힘입어 도이머이 이전에 1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P가 2014년에는 2,000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50.8%에 이르렀던 빈곤율도 2010년대에는 20%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즉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대로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33.3%와 39.7%로 증가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베트남에는 20여만 개의 기업이 활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Country Insight Report 2016: 30-31).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동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이다. 베트남은 ‘세계생산사슬’(global production chain)에서 저가의 제조품을 생산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자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노동집약적 상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은 2016년 말 현재 전자와 통신 장비(24%)와 의류와 신발(7%)이다. 특히 한국계 기업인 삼성이 북부의 박닌(Bac Ninh)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에 세계최대의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베트남 수출의 무려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세, 세아, 한솔 등 대형 의류 벤더(vendor)와 태광, 창신 등 신발업체도 베트남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2015). 이밖에도 커피, 쌀, 캐쉬넛 등의 농산품의 수출과 아세안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석유생산도, 비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저가공산품의 수출기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비록 1999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4.3배 증가하고, 특히 2011년 이후 매년 여러 차례의 임금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12.4%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은미 2016: 12). 우선, 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보다는 평균임금이 높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다(Country Insight Report 2016: 31). 무엇보다 저가 생산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의 1/3에 불과하여 중국에 위치한 외자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9,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5세 미만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28.2세에 불과하여 풍부하고 젊은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박지은 2016: 3). 비록 숙련노동자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학구열과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력을 보유하고

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하기에 적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잘 보장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가 10%에 불과하고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을 매개로 국가가 노동자의 저항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는 점도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단기기간에는 베트남의 경제성장 엔진이 활발하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가 여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예견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최근 신흥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의 불협화음, 금융시장의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10-11). 최근 몇 년 동안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일본과 유럽공동체가 부양책으로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은 자본유출과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생산시설의 과잉투자과 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부추기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25-29).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과 같은 저가품 생산국은 '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 상품교역 둔화, 보호무역 대두 등의 거시적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외적 여건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계경제 위기가 닥쳤던 2011년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매년 5-6% 성장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예를 들어, 2015년 6.7%)에는 중간재의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지만 최

근 3년 동안 꾸준히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수치 못지않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2016년 중반까지 유지된 저유가효과로 인하여 정부가 목표한 5% 이하의 물가억제를 쉽게 달성하고 있어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일시적으로나마 멈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연계하여, 최근 2년 동안 신용이 15%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입증하듯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Country Insight Report 2015: 14). 이처럼 자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내수시장은 베트남 경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니노 현상과 연계된 자연재해는 전체 국토의 60%, 인구의 70%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률을 0.5% 정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ountry Insight Report 2016: 10). 실제로 2011년 이후 가뭄과 홍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경제성장이 목표치를 밑돈 이유도 우기인 6월에서 11월까지 남부의 메콩 델타 유역과 중부의 고산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기후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보험가입도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자연재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가 세계경기의 위축,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와 교역증대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디스, 피치, S&P 등 영향력이 막강한 신용평가 기관이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내는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베트남 경제의 약점은 불투명한 정보, 불필요한 규제, 자본을 보호하

기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베트남 정부는 최근 외자유입과 교역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취하는 정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다. 2015년만 보더라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현재 46개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는 등 세계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Country Insight Report 2015: 18). 다른 하나는,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을 점차 제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동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고하게 지켜오던 국영기업의 외국자본 비율 49% 제한과 해외소매자본 불허 원칙을 2015년에는 100% 허용으로 바꾸었다(박지은 2016: 12; Country Insight Report 2015: 17). 이와 같은 규제의 철폐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음 절에서 기술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2. 도사린 암초와 베트남 경제의 장단기 전망

최근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침체, 유가변동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xiii-xiv). 여기에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Trump)정부가 표방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축약하면 2011년 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어난 과잉투자, 선진국의 생산인구 감소, 불평등의 증대와 같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2015-2016년은 선진국의 금융정책이 2016-2017년은 세계무역협

정의 유동성이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가 베트남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베트남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장단계나 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외부변수의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의 경우 금융부문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은, 비록 GDP 대비 부채가 적지는 않지만, 급격한 금융자본 이탈과 외채로 인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Country Insight Report 2016: 21-22). 브렉시트도 베트남이 수출하는 EU 국가 중에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의 과잉투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변화도 베트남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와 함께 베트남은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19).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나 소비재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 위치해 있던 저가상품 생산기지의 베트남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VinaCapital 2015: 7).

대외적 변수 가운데 국제무역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베트남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Dubai Exports 2016: 3). 하지만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전자, 통신, 의류에 집중되어 있는 베트남의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가 이미 낮아 미국이 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생활필수품 수입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파급효과를 통해 세계경제 전반에 불러올 파장은 무시하기 힘들 수 있다. 1930년대 ‘스무트-하울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어져 대공황을 연장시킨 현상이 재연된다면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수출위주의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Country Insight Report 2016: 6). 여기에 더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기대로 2015년 이후 한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의 외자가 베트남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호언한대로 이 협정이 폐기된다면 베트남 제조업 일부에서 최근 급속하게 이루어진 과잉투자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2016년 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7.7%(144억 달러) 증가했으며, 동기간에 베트남에 등록된 회사의 수도 20% 정도 늘어난 바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1-164).

이처럼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부변수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베트남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장기지속 가능성이다. 도이머이를 실시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정부는 제11차 계획기간(2011-2015)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12차 계획기간(2016-2020)의 목표를 평균 6.5-7.0% 경제성장, 1인당 GNP 3,750 달러의 달성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성장모델 개혁 혹은 산업고도화, 사회평등의 진전,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세계로의 통합을 세부목표로 삼았다(정재완 2016: 10).

이러한 성장목표는 적어도 제12차 계획기간에는 전자와 의류를 축으로 하는 수출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

케 하는 추가적인 요인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이다.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상승하면서 내수시장에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1-2).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미얀마 다음으로 인프라 경쟁력 지수가 낮은 나라이고(박지은 2016: 19), 동시에 정부가 도로망과 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가장 빠르게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정재완 2016: 10; 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6-167). 실제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느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나 도시의 외관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은 자동차 구매를 늘리고 대형마트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소비양태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경제기구나 평가기관에서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 특히 건설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전반기에만 부동산 대출로 인하여 신용(credit)이 명목 GDP의 3배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부실대출(NPLs)이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부채로 인한 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를 설립하여 악성대출을 흡수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금융관련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VinaCapital 2015: 1). 하지만 이 회사의 총자산이 많지 않고, 부채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와 원칙이 투명하지 않아 의구심을 낳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2-163).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의 경제관련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패, 부정확한 정보,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정, 그리고 계약이나 파산 등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2012년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부패 청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총 177개 국가 중 119위를 기록하여 동남아시아 내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부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수치는 기업이 베트남 관료에게 지불해야 할 비공식 비용이 아직 많은 엄연한 현실을 상기시킨다. 공산당과 정부기관이 경제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법, 제도,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흐리는 현재의 관행이 얼마나 빨리 개선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베트남 외부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요인보다 베트남 경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베트남이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단기에는 임금대비 생산성이 높고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상승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10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하여 삼성전자의 통신장비나 기술개발센터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여도 고급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정보와 기술의 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노동자는 그저 어셈블리 라인에서 조립을 위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장기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베트남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자본의 시선에서는 법, 제도, 금융 체계의 개선을 통한 개방 확대와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장기성장을 담보하는 “올바른” 정책으로 보이겠지만(Country Insight Report 2015: 31-36), 이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2011년

베트남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에서 2016년에는 무려 70%를 넘어섰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3).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교역도 초기에 비해 70배를 넘어선 바 있다. 이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면 장·단기적으로 외부변수의 영향이 커지고 자율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제약되면서 경제의 상시적인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자본주의화는 일부 특권계층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고 중산층의 수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효과를 상쇄하는 사회경제적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불평등으로 몃살을 앓고 있는 어느 국가 못지않게, 베트남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다. 아직은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도시와 산업지대로 이주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가구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채수홍 2013: 14-19). 이들의 경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일상 속에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2014년 반(反)중국 시위나 2016년 대만기업 포모사의 독성물질 무단방출사건과 같은 계기를 통하여 폭력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VOA 뉴스 2014/05/15; Wall Street Journal 2016/06/17).

외국자본은 베트남 정부에 개방 확대와 경영활동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저해왔던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내수시장의 개방 등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로 급속하게 통합되어 가는 베트남 경제가 단기적으로 자본의 이러한 요구에 저항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 경제의 하부구조가 낡아 자본주의화 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난망한 산업구조조정, 대외의존도의 심화, 불평등의 가속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효율성, 개방, 민영화, 규제개혁과 같은 신자유주의

의 구호와 신조 속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는 정치영역에서 표방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경제적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본주의화 사이에서 갖가지 모순을 겪으며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 체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체제가 갖는 모순에 기인하는 필연적 난제이기도 한 것 같다(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1988: 191).

V.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들은 2016년 전후에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지향하며 각국을 방문하여 관계를 확대하였다. 제12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2015년 4월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중국을 방문하였고, 11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한편,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2015년 7월에 베트남공산당 총비서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제12차 당대회 직전인 12월 말에는 응우옌신홍(Nguyen Sinh Hung) 국회주석(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최고위 지도자들의 각국 방문은 베트남이 강대국 관계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6년 1월 제12차 당대회 이후, 4월에 응오쑤언릭(Ngo Xuan Lich) 국방장관, 이어 5월에 응우옌쑤언푹 수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베트남이 당대회 직후 2월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긴 했지만, 제12차 당대회와 새 국가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 최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응우옌쑤언푹 수상은 5월에 일본, 9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7년 1월에 아베 일본 총리는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렇듯 2015-16년간 베트남

을 둘러싼 정상급 방문외교는 빈번히 이루어졌다.

한편, 2016년 5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되었고, 베트남은 오바마의 방문을 제12차 당대회에서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연임으로 친중과가 득세했다는 해석에 대한 균형추로 이해되길 바랐을 것이다. 오바마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113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 여객기 10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그간 미국이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국가라고 평가되어 왔다. 더불어 오바마는 하노이에 있는 한 서민 식당에서 분짜(bun cha), 냄(nem) 등 베트남 음식과 함께 하노이 맥주를 마시는 등 서민적 행보를 이어갔고, 하노이에서 호찌민이 거주하던 집을 방문하고 호찌민 시에서는 응옥황(Ngoc Hoang) 절을 방문하여 베트남 문화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근래 베트남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핫 이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일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이에 환호하였고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반발하였다. 이 판결로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입지도 강화되었으나, 베트남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자세를 취하였다.⁵⁾ 반면, 중국이 근래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건설, 레이더 등 군사장비 배치 등 군사시설화에 박차를 가하자, 베트남이 이에

5) 2016년 7월 15-16일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수상이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베트남은 남중국해 관련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하였으나, 이는 '의도적' 오보였다고 판단된다(홍계성 2016).

대응하여 2016년 중 스프래틀리 제도에 로켓 발사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중국의 민간항공기가 스프래틀리의 한 섬에 착륙하여, 베트남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남중국해, 특히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중국과 동남아 각국, 특히 베트남과의 각축은 계속되고 있으며, 베트남 국민들은 중국의 공세에 반대하여 지속적으로 반중국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다변화 대외전략을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예컨대 베트남은 2009년 러시아와 20억 달러 규모의 킬로(kilo)급 잠수함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부터 잠수함을 인도받기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그 다섯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았으며, 여섯 번째 잠수함을 2017년 2월에 인도받았다(Nguyen Chung 2016). 2016년 9월에 베트남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자금 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는 이미 함정 구매를 위하여 베트남에 1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킬로급 잠수함 운용을 위한 베트남 해군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Reuters/TN News 2016). 일본은 베트남에게 해양순시선 6척을 이미 제공하였고 추가로 6척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미국도 베트남에게 해양순시선 18척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6년에 미국이 대 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여, 향후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통하여 상징적으로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낮은 경제력 수준으로 인해 고가의 무기구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참고문헌〉

- 김문성. 2016.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친중 보수화로 개혁속도 조절하나.” 『연합뉴스』 1월 27일.
- 김문성·김윤구. 2016. “한풀 꺾인 베트남 고성장세…올해 경제성장을 6.2%(종합).” 『연합뉴스』 12월 28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베트남 2016 경제전망.” Kotra.
- 박지은. 2016. “아세안 Top3 VIM을 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서울: 한국무역협회.
- 외교부. 2016. “세계은행 (WB) 베트남 경제 보고서(7.19 발표) 주요 내용.” 서울: 외교부.
- 이은미. 2016. “2017년 베트남 경제 전망 및 주요이슈 점검.” 『Trade Focus』 42: 1-20.
- 이한우. 2011.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1(3): 105-138.
- 정재완. 2016.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특징과 향후 정치·경제 전망.” 『지역연구』 16(12): 1-13.
- 채수홍. 2013. “베트남 살꽁이 파업의 양상과 원인: 남부 빈즈엉 (Binh Duong)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3(2): 1-48
-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5년 세계경제 이슈 및 전망.”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홍제성. 2016. “中 리커창, 몽골서 남중국해·‘일대일로’ 전방위 외교.” 『연합뉴스』 7월 15일.
- Asian Development Bank. 2016.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Update: Meeting the Carbon Growth Challenge.” Asian Development Bank.
- Beresford, Melanie. 1988. “Issues in Economic Unification:

- Overcoming the Legacy of Separation in Postwar Vietnam.”
D.G. Marr and C.P. White (eds.), *Dilemmas in Socialist Vietnam*. Ithaca: Cornell University Southeast Asian Program. 95-110.
- Dang Cong san Viet Nam(DCSVN). 2011.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문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DCSVN. 2016.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I* [제12차 전국대표대회 문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Dubai Exports. 2016. “Vietnam Economic Overview & Trade Analysis.”
- Dun & Bradstreet. 2015.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December 2015.”
- Dun & Bradstreet. 2016. “Country Insight Report: Vietnam, December 2016.”
- Fforde, Adam and Stephan de Vylder.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 Ha Phuong. 2016. “Vietnam’s Economy Expands 6.2 Percent in 2016.” *VnExpress* December 28.
- Hiebert, Murray. 1993. *Vietnam Notebook*. Hong 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 Kolko, Gabriel. 1997. *Vietnam: Anatomy of a Peace*. New York: Routledge.
- Nguyen Chung. 2016. “5th Russian-Built Submarine Arrives in Vietnam.” *Thanh Nien News* January 27.

- Nguyen Khac Vien and Huu Ngoc (eds.). 1998. *From Saigon to Ho Chi Minh City: A Path of 300 Years*. Ho Chi Minh City: The Gioi Publishers.
- Reuters/TN News. 2016. "India PM Offers Vietnam \$500 Million Credit Line for Defense Cooperation." *Thanh Nien News* September 03.
- Thayer, Carlyle A. 2011. "Leadership Change in Vietnam." *ASEAN Monthly Commentary* February.
- VinaCapital. 2015. "Vietnam's Economy: A Review of 2014 and Our 2015 Outlook." *VinaCapital Economic Report* January.
- Vo Nhan Tri. 1988. "Party Policies and Economies Performance: The Second and Third Five Year Plans Examined." D.G. Marr and C.P. White (eds.), *Dilemmas in Socialist Vietnam*. Ithaca: Cornell University Southeast Asia Program: 77-90.
- VOA 뉴스. 2014. "베트남 반중 시위 가열.....중국공장 방화." 5월 15일. <http://www.voakorea.com/a/1914441.html>. (검색일: 2016. 10. 15).
- Wall Street Journal. 2014. "Behind Vietnam's Anti-China Riots, a Tinderbox of Wider Grievance." June 17. <http://www.wsj.com/articles/> (검색일: 2016. 10. 15).

(2017.01.29. 투고, 2017.02.14. 심사, 2017.02.15. 게재확정)

<국문초록>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 한 우 · 채 수 흥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

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 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제어: 2016년, 베트남, 공산당, 사회주의, 경제성장, 구조조정, 외교다변화

<Abstract>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EE Han Woo
(Sogang University)
CHAE Su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c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year of 2016, situations and prospects of the Vietnamese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ly, Vietnam completed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organized new leadership at the 12th National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in 2016. One characteristic of the new leadership is that the politicians, especially the members of politburo, from the North continue to occupy the position of majority. The other one is that the new leadership promised to carry out the restructuring of economy toward industries producing higher value-added commodities even though Vietnam industries admittedly need to accelerate present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a developing country under the seemingly contradictory slogan of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for socialism.”

The declared goals of the new leadership in Vietnam are inevitable in a sense since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economy has been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aking advantage of Vietnamese cheap labor and simultaneously it is evident that its future is unsecure if it maintains status quo. In fact, the Vietnamese economy has impressively showed high growth rate by the help of foreign capitals since 1990s despite the repetitive recessions of global economy but its growth is not likely to be sustainable anymore if it will not reduce foreign dependency and social economic inequality in a long term. In a short run,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of global powers, and recent protectionism and uncertainty of trade agreements will be three crucial variables to affect Vietnamese economy.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Vietnam is continuously expected to practise the policy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powerful countries. Vietnam has seriously disputed with China on islands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attempted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powerful countries including especially America. However, mainly due to the new protectionism by the regime of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 the Vietnamese government also need to keep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increasingly for both economic and diplomatic security. Under the circumstances, Vietnam is expected to maintain more practical and balanced international relations.

Key Words: 2016, Vietnam, Communist Party, Socialism, Economic Growth, Restructuring, Diversification of Diplomacy

